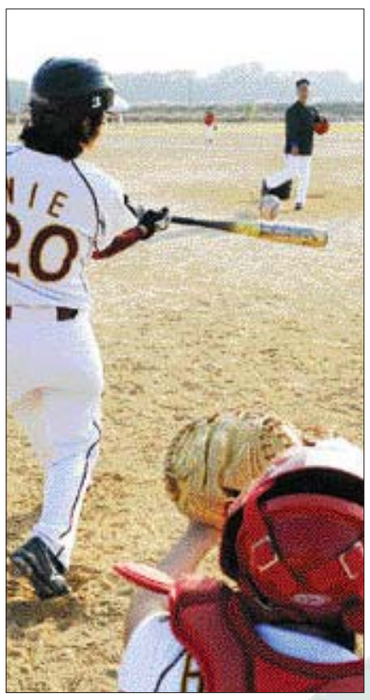

男 부럽잖은 여장부들
'인·생 홈·런'

■ 광주 여자 야구단 '스윙 이글스'

1999년 제33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덕수상고와 배명고의 준결승 열리던 동대문운동장. 관중석의 응성거림 속에 마운드에 오른 덕수상고의 선발 투수는 첫 타자에게 몸에 맞는 볼을 내주며 경기 시작과 함께 동료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비록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이 투수가 던진 3개의 공은 우리나라 야구 역사의 특별한 공으로 남아있다. 이날 덕수상고 선발투수로 이름을 올린 이는 바로 '여자 야구'의 선구자 안향미였다. 이날 준결승은 한국 야구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여자 선수가 공식 경기에 출전한 날로 남아있다. 광주에서도 안향미의 야구 열정을 잇고 있는 여성 야구인들이 있다. 축구, 농구, 야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 이들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동네 체육계를 휘어잡고 살던 여장부들로 지금은'스윙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못다한 야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감독 송옥선(여·32)씨는 "안향미를 보고 '여자도 야구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며 "인터넷 검색을 하다 광주에서 여자야구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지난 2005년 5월 인터넷상(http : //cafe.daum.net/kjwobaseball)에 야구 동호회 카페가 개설된 뒤 그해 12월 창단식을 통해 '스윙 이글스'의 날갯짓이 시작됐다. 20대 초반의 컴퓨터 엔지니어부터 40대 초반의 학부형까지 회원들의 연령과 직업은 다양하지만 그라운드에서만큼은 한결같은 악바리 선수들이다.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송옥선 감독도 예외가 아니다.

"어렵고 위험한 운동이라 집에서 반대도 많이 하셨지만, 9명의 선수가 하나가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야구의 매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끈끈한 동료애도 '스윙 이글스'를 특별하게 하는 하나입니다."

지난해 2007년 3월 한국여자야구연맹이 창립되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주최 전국규모의 여성 야구 대회가 열리는 등 여자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스윙 이글스'의 지난 3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광주·전남 지역의 여자야구단은 '스윙 이글스'가 유일하다. 연습 상대도 없어 초등학교 야구부와 연습게임을 갖는 것에 만족해야하며 부상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연습장도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회원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스윙 이글스'의 전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혜민(여·28)씨는 "포항에서 열린 제 2회 KBO 총재배 전국 여자야구대회 3위를 거머쥔대 이어, 이번 달 초에 개최된 제2회 회장기 전국 여자야구대회에서도 3위를 차지하면서 광주야구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한 점, 한 점 만들어 갈 때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흥 녹동에서 광주까지의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는 회원도 있다. 녹동에서 논술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박윤미(여·37)씨는 야구 헬멧을 쓰고 강의를 할 정도로 소문난 야구광이다. "동네에서 남자들과 야구를 하기도 했는데 여자야구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해 광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연습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힘든 훈련 탓에 다리가 떨리기도 하지만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잔디구장 대신 일반 운동장에서 뛰고 달려야 하는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은 예사고, 불규칙 바운드로 튀어오른 공에 얼굴이 찢어지고 코뼈가 내려앉은 경우도 있다. 공에 맞고, 울퉁불퉁한 운동장에 넘어져 온몸이 멍투성이지만 이들의 야구 열정 앞에서 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 외야를 호령하는 주부도 있다. 권연화(여·38)씨는 "대회와 친선경기 등이 있을 때 남편이 매니저로 나서줄 만큼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야구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회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째 '스윙 이글스'의 코치를 자처하고 있는 이현진(37)씨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 남성회원이다. 청주에서 초·중·고를 다니며 선수 생활을 했던 이씨는 지난 2006년 '스윙 이글스'의 멤버가 됐다.

"아는 분 소개로 선수들을 만났는데 남자팀 못지 않은 가능성을 보고 코치를 맡아 제 2의 야구인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세종고 소프트볼 감독님 등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현진 코치는 선수들의 열의가 고맙고, 감동스럽기는 하지만 그만큼 걱정도 된다.

"열악한 조건에서 열정적으로 야구를 하다 보니 선수들의 부상이 잦습니다. 세 번의 팔꿈치 수술로 선수생활을 그만둬야 했던 제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몸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고 즐겁게 야구를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첨단 첨단소프트볼경기장에서 야구선수로 변신하는 이들은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주말을 기다린다. 어쩌다 운동을 쉬게 되면 팀 인터넷 카페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이 쇄도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특이한' 여자로 살아야 했던 이들은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면서 미니 올림픽을 열기도 하는 등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행복하다. 야구가 있어 행복한 '스윙 이글스'의 야구사랑은 오늘도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두려움 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야구 열정을 꽃피우고 있는 광주·전남 유일의 여자 야구단 '스윙 이글스' 회원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창권(30)·이재돈(36)·박윤미(37)·권연화(38)·김화원(30)·염국진(37)·이현진(37)·정혜민(28)·송옥선(32)·장슬기(25)·위호재(28) 회원.